



김재운



김우재

# 비올라와 기타의 절묘한 만남

(사)마당의 2월 목요초청공연은 '김재운, 김우재 듀오 리사이틀(DUO RECITAL)'로 꾸며진다.

8일 전주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수의 독주회와 협연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연주를 보여주는 비올리스트 김재운과 표현력 있는 음색과 열정적인 연주로 청중을 압도하는 기타리스트 김우재가 만나 현악기만의 깊은 울림과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 마당 2월 목요초청공연 김재운·김우재 듀오 리사이틀'

현악기만의 깊은 울림·완벽한 화음 등 선사... 오늘 공연

비올리스트 김재운은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독일 Robert Schumann Hochschule, Dusseldorf에서 비올라 Diplom 및 Konzertexamen과 정과 Folkwang Hochschule, Essen에서 실내악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재학중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귀국 후 현재까지 국내 무대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우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독

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mburg)에서 수학했다.

프랑스 Concours International de Guitare en Cerdagne에서 1위없는 3위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 중이다.

이들은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해 비올라와 기타의 완벽한 화음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두 남녀, 인생에서 잊지 못할 밤을 보내다

영화 '포르토' 스틸컷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

이달 선정작 '포르토' 선정... 오늘 오후 7시30분 상영

제이크와 프랑스 여자 마티가 첫 만남을 통해 인생에서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포르토'는 최근 거의 모든 개봉작들이 디지털 촬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8mm, 16mm, 35mm 필름을 번갈아 사용하며 촬영됐다. 동시대 영화로 접하기 어려운 필름의 질감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는다.

작품은 게이브 클링거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최근 '페터슨'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짐 자무쉬 감독이 제작자로서 함께 했다. '러널리스트'의 청년 뮤지션 샘, '스타트렉' 리부트 시리즈에서 체코프 역으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안톤 엘친의 유작으로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영 후에는 '무위한' '월라인' '졸타동시'를

촬영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강국현 촬영감독과 함께 8mm, 16mm, 35mm 필름 등으로 '포르토'의 영상을 중심으로 풍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영화관 관계자는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는 전문가와의 토크를 통해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은 관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한해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사업 공모

(재)익산문화재단은 '2018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및 우수프로젝트 활성화 등 특성화된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지원사업 신청은 지역예술인과 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문화예술단체만 가능하다.

지원방식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8일 오후 3시에 익산문화재단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사업의 서류접수는 27~28일 양일간 진행하며, 1차(서류심사)·2차(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다음달 7일 재단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통음악 새로이 풀다



▶ 창작민속악단 '악바리' 11일 무대 ◀

창작민속악단 악바리가 11일 오후 7시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한다.

'끈질기게 노력한다' '즐거움을 안고 다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악바리는 민속악을 새롭게 연구 및 연주하는 악단. 2016년 창단한 이들은 각 악기들의 특성과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 우리 음악의 멋을 표현하며 대중들 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악바리는 첫 공연 '음악을 새로이 풀다'를 통해 관객들과 인사한다.

악푸리: 비나리

바리시나위 등 연주

우진문화공간서 공연

이날 공연에서는 악푸리: 비나리, 바리시나위, 흥보가 부자가 되었는지, 셋집곳, 푸살, 남도민요를 위한 창작

민속악 풍류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 관계자는 "공연은 한국 전통 민속악의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음악을 창작하여 신선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